PETER F.DRUCKER
SOCIETY OF KOR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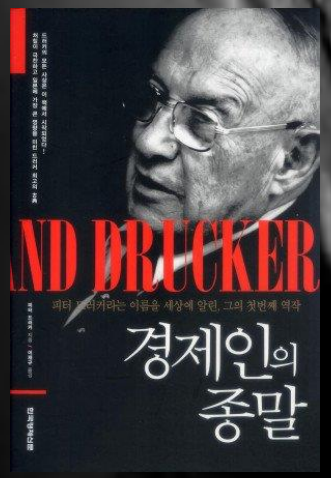
#8

피터드러커의

THE END OF ECONOMIC MAN

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

경제인의 종말



PETER F.DRUCKER
SOCIETY OF KOREA

미래 전망

: 서쪽을 해결하기 위해 동쪽을 이용한다



독소전쟁 발발의 기대

서구의 독소전쟁 발발 기대

서구 민주주의 좌파정당과 우파정당 ▶ 독소전쟁 발발 기대

(∵ 전체주의 국가가 서구를 공격하는 것을 예방)

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<u>오해</u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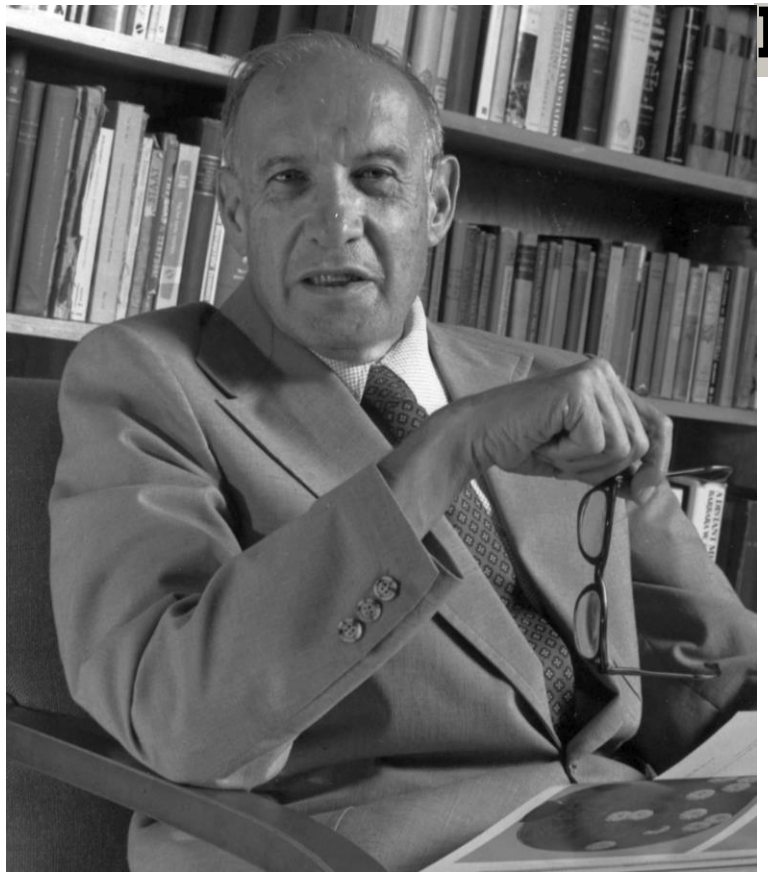
= 독일과 소련사이 <u>'타협 불가능한 대립'</u> 有

(∵ 파시즘의 반사회주의라는 선언에 파시즘이 친자본주의라 생각)

독소전쟁 발발의 기대

독소동맹의 임박

독소전쟁의 발발 ▶ 희망사항



피터 드러커의 서구 예언

"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일한 생각에서
깨어나는 순간

어떤 계획도 없이 허둥댈 것이다."

피터 드러커가 본 독소동맹 예언

"독일과 소련은 이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
비슷하기 때문에 합하게 될 것이다."

독일과 소련의 이해득실

나치의 적은 서구

소련 공산주의



"이념적으로나
사회적으로나
비슷해지는 소련과 독일"

서구 민주주의



"민주주의 국가가
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
전체주의 내적 안정성에
위험"

공산주의를 포기한 소련

▶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붕괴
(자유의 완벽한 실종, 카스트적 세습제)

→ 이에, 파시스트 원칙을 하나씩 채택
(=어쩔 수 없는 선택)

PETER F.DRUCKER SOCIETY OF KOREA

8-2. 독일과 소련의 이해득실

독일과 소련의 이해 일치 (독소동맹)



독일의 경제적 문제 ▶ 소련의 기름진 토양과 많은 원재료

소련의 군사적 문제 ▶ 두 전선과의 싸움 방지 (일본 + 서부 민주주의 국가)

불가침조약(독소동맹)의 필연성

새로운 사회

도덕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필요하다.

- 동쪽(독일)으로부터의 전쟁 준비 필요 (유럽의 미래 결정)
- 새로운 사회 필요 (도덕적 ·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회)

제 3의 길

▶ '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 평등한 비경제적인 사회'

∵ 전쟁은 적극적 가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서구가 감당 가능